

고물가에 보양식도 '간편식'

닭 사육 감소·운영비 증가에 광주 삼계탕 가격 평균 1만6500원 저렴한 가격·좋은 품질에 '간편식' 인기...비비고 등 매출 상승

주부 박지원(여·52)씨는 말복을 일주일여 앞둔 2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삼 삼계탕 4팩 묶음 상품을 3만6000원에 구입했다. 박씨는 "고물가에 삼계탕을 사먹기엔 부담스러워 간편식 삼계탕을 구매했다"며 "지인에서 선물 받아 먹어봤는데, 내용물 구성이며 맛이 시중 2만원짜리 삼계탕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많이 올라 직접 만들어 먹는 것도 비슷한 가격이다"며 "대우기만 하면 쉽게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물가에 간편식 보양식으로 삼복더위를 이겨 내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간편식 보양식은 음식점 삼계탕 2만원 시대에 1인분에 1만 원 안팎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다 우수한 맛과 품질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외식업체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비비고 삼계탕'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견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4월과 5월과 비교해 보면 3배 가량 늘었다.

동원F&B는 올 상반기 삼계탕 간편식 매출이 작년 동기과 비교해 25% 증가했고, 올해 2분기의

경우 1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5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푸드 역시 간편식 올반 삼계탕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 증가했다.

간편식 보양식의 매출 증가는 물가 부담에 따른 것이라는 게 외식업계 분석이다.

제품 중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000원 미만 제품도 1만원 초반대로 시중 음식점 가격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생닭과 이른 장마로 가격이 크게 오른 대파 등 식재료 가격 부담을 생각해보면 삼계탕 간편식을 사서 먹는 게 경제적이다. 또 특별한 조리가 필요 없이 대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음식점 삼계탕 가격이 줄곧 오르고 있어 가공식품 삼계탕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포털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의 삼계탕 가격은 평균 1만6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5000원에 비해 9.3% 올랐다.

인건비에 임대료, 재료비 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탓에 식당 운영비가 증가, 삼계탕 가격 역시 상승한 탓이다.

특히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의 가격이 상승했다.

사료값 증가 등 고정비용 증가로 생산비가 인산됨에 따라 농가들이 사육 마릿수를 줄이면서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닭고기(육계) 소매가는 kg에 6349원으로 1년 전 5728원보다 10.8% 올랐다.

이에 따라 집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먹을 때 드는 비용도 작년보다 비싸졌다.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올해 집에서 삼계탕을 만들어 먹을 때 4인 가족 기준 3만4860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3만1340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보다 11.2% 올랐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해마다 가격을 조사하면 (삼계탕 재료) 품목별 생산량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는데, 올해는 내린 품목 없이 지난해와 같거나 오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고량이 감소한 밤과 이른 장마로 생육 환경이 나빠진 대파의 가격이 올랐고, 한 봉지씩 포장된 육수용 약재도 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세계 유니버스 주말세일' 이마트, 먹거리·생활품 반값

4~6일 생활품 골라담기·1+1 등

이마트는 오는 4~6일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워크 주말세일'을 진행한다

우선 이마트는 4일부터 6일까지 한우와 양파, 계란, 새우, 샤인머스켓 등의 신선 먹거리들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한우는 3일간 기획 물량만 약 60 t.으로, 인기가

많은 등심과 채끝은 정상이 대비 50%, 국거리·불고기는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양파는 1봉지(15~18개) 당 4990원, '알찬란(30개입)'은 1판 구매 시 20% 할인, 2판 이상 구매 시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 밖에 '항공직송 호주산 소고기 모듬팩 3종(400g)'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가공 먹거리와 생활용품의 경우 골라담기 행사

부터 전품목 2개 구매 시 50% 할인, 1+1 프로모션 등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접라던 전품목 '골라담기'를 통해 5개 한 묶음 4900원에 판매한다. 또 '냉동 핫도그', '냉장 냉면 2인분', '고추장', '쌈장', '들기름·참기름', '분말카레·짜장', '만두/돈가스/즉석국량', '시리얼' 등의 상품들을 전품목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기저귀도 1+1 행사를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항공업계, 휴가철 맞아 일본·동남아 항공편 늘린다

아시아나, 호주 등 14편 증편 제주항공, 인천~나트랑 2배 ↑

국적 항공사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국제·국내선 노선에서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최근 여객이 몰리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에 집중해 좌석 공급을 늘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일본, 홍콩, 호주 등에서 총 14편의 노선을 증편하거나 운항을 재개했다.

인천~도쿄(나리타)는 이날부터 주 2회에서

25회로 증편했고, 인천~도쿄(하네다)는 이날부터 주 3회 운항을 재개했다. 인천~나고야 노선은 지난달 28일부터 주 5회에서 주 7회로 증편했다.

인천~홍콩 노선은 오는 14일부터 주 11회에서 14회로 증편하며 인천~시드니 노선은 오는 7일부터 주 7회에서 9회로 늘려 운항한다.

제주항공은 인천~삿포로 노선을 이달 31일까지 주 14회에서 주 21회로 늘렸고, 인천~치앙마이 노선은 이달 20일까지 주 7회에서 14회로 증편했다.

인천~나트랑 노선은 하계 운항 스케줄 기간인 10월 28일까지 주 7회에서 주 14회로 2배 늘렸다.

진어는 주 7회 운항하는 인천~오키나와 노선

에 이달 임시편 4편을 추가해 주 11회로 증편했다. 인천~세부 노선은 주 11회에서 주 14회로, 인천~나트랑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14회로 늘렸다.

에어서울의 경우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은 기존 일 2회에서 3회로, 인천~오사카 노선은 주 14회에서 18회로 증편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선만 운항 중인 이스타항공은 김포~제주 노선에 한 달간 임시편 208편을 투입한다. 이번 증편으로 김포~제주 노선 공급석은 하루 5670석에서 7316석으로 약 29% 늘어났다.

티웨이항공도 이달 인천~세부, 인천~홍콩, 인천~삿포로, 인천~사이판 노선과 일부 국내선 노선 등에서 증편해 운항한다.

/연합뉴스

'거거익선' 삼성전자 판매 TV 30%가 초대형



7~13일 네이버 신상워크 진행 삼성 사운드바·티빙 이용권 제공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에서 판매한 TV 3대 중 1대는 85형(214cm) 이상의 초대형 TV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판매된 삼성 Neo QLED·QLED TV 3대 중 1대는 85형 또는 98형(247cm)이었다.

85형은 사이즈별 판매 비중에서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30% 기록, 대중적인 TV 사이즈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98형 Neo QLED 8K를 출시하며 8K부터 Neo QLED, QLED까지 98형 라인업을 갖춘 7월에는 98형 제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7배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80형(203cm) 이상과 75형 이상의 글로벌 TV 시장에서 각각 43.9%, 38.8% 점유율

을 기록하며 전세계 초대형 TV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의 프로 스포츠 리그, 국가 대항 스포츠 빅 이벤트 등 다양한 스포츠 축제를 앞두고 압도적인 화질로 스포츠 관람의 몰입감을 높이는 대형 TV를 대상으로 '삼성 TV, 대(大)~한 TV'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새로 출시되는 QLED 라인업을 포함해 대형 TV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네이버 신상워크와 8일에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신 모델 QC75를 구매하면, 삼성 사운드바(C400)와 티빙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에 대상 제품을 구매하는 전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65형 QLED(65QC60)를 특별한 가격으로 한정 판매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장마·폭염에 '반바지 출근룩' 확산

무신사, 남성 반바지 매출 40% ↑

올해 여름 폭우가 쏟아진 데 이어 폭염이 찾아오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바지 출근룩'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일 '무신사'가 지난 6~7월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용 반바지 검색량은 전년 대비 40% 상당 증가했다. 최근 세기말 패션이 유행하면서 데님 소재의 버뮤다팬츠 검색량은 120%

이상 증가, 플립플롭과 반소매 티셔츠 검색량도 많았다고 무신사는 설명했다.

무신사에서는 패션 브랜드 '인템포드'가 발매한 버뮤다팬츠가 20대 남성 고객에게 인기를 끌면서 3개월 만에 4000장 이상 판매되기도 했다.

젊은층 사이에서 편안한 복장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출근 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멀한 디자인의 반바지 셋업 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